

보도일시

2026. 9. 1.(화)

배포

2026. 9. 1.(화)

동해해수청, 강릉 영진항 선박과 충돌한 파손 등표 복구 추진 - 영진리수중방파제2호등표 복구를 위한 설계용역 추진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선박과 충돌하여 파손된 강릉시 영진항의 영진리수중방파제2호등표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진리수중방파제2호등표는 영진항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수중방파제와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한 항로로 안내하고자 2021년 12월 설치되었다.

그러나, 올해 7월 어선과 등표 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등표 시설물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표체가 기울어지는 등 손상이 생겼다. 이에, 동해해수청은 사고 직후 관련 정보를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전파하고 해양경찰서와 협력하여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동해해수청은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기존 파손 등표 철거 등 다양한 처리 및 복원 방안을 마련한 후 등표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파손된 등표를 신속히 복구하여 후속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선박이 안심하고 운항할 수 있는 안전한 해양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최금성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김관우 (033-520-6277)



영진리수중방파제2호등표 피해 전경